

### 하나로 유익



# '문 열고 에어컨 빵빵' 여전히다

### ■에너지 사용제한 첫날 동행취재 해보니

### 총장로 일부 상인들 "26도 이상 유지 몰랐다" 내달부터 위반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까지

정부가 여름철 에너지 절약의 일환으로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영업장에 대해 18일부터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광주지역 주요 상권 특별관리지역으로 선정한 동구 총장로에서 광주시, 동구청, 에너지관리공단,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합동으로 단속을 펼쳤다. 단속 첫날, 대상 업소는 규정대로 문을 닫고 냉방을 하는 곳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상점도 많았다. 이날 오후 2시에 광주 동구 총장

로, 출입문을 열어 놓은 채 냉방을 하고 있는 한 화장품 매장은 입구부터 차가운 바람을 느낄 수 있었다. 이 매장에 단속반이 들어 닥치자 매장 직원들은 어리둥절해 했고 합동 단속반은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합동 단속반은 매장직원에게 홍보 전단지 나눠 주며 "오늘부터 에너지사용제한 시행 첫날인데 출입문을 열고 냉방을 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면서 "오늘은 홍보·계도 기간이라서 그냥 가지만 다음 달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

다"고 주의를 줬다. 이 매장 직원은 "언론에서 열핏 보도하는 것을 본적은 있는데 오늘부터 시행하는 줄은 몰랐다"면서 "오늘은 과태료 부과하는 날이 아니어서 다행이다. 이제부터는 꼭 문을 닫고 냉방을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근 한 대형매장 역시 2층에서 온도를 측정해 본 결과 25.7도가 나왔다. 규정에는 계약전력 100kW 에너지 다소비 건물은 실내온도 26도 이상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단속반은 건물 관리자에게 경고했다. 이에 건물 관리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도계는 26.2도로 측정된다"며 "따뜻하니 단속에는 일반 온도계를 사용하지 않고 영점 조절이 된 온도계만을 사용한다"는 단속반의 설명을 듣고 이내 수긍하는 모습을 보였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단속을 하다가 보면 규정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장사 안되게 왜 이러느냐'며 되레 화내는 상인들도 있다"면서 "정부에서 과태료를 걷어 돈을 벌려는 목적이 아니고 에너지를 절약하자는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동구청 관계자는 "오늘은 과태료 부과 목적이 아니고 홍보·계도를 위한 단속이기 때문에 집단지배포와 정부시책에 대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다음달 1일부터는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에너지사용제한 위반 시에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정민기자genius@kdaily.com



규정 냉방온도 측정. 여름철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된 가운데 문을 열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영업장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 18일 오후 광주시와 에너지관리공단, 동구청 등 합동점검반원들이 총장로 한 쇼핑몰에서 규정 내부온도를 측정하고 있다. 이날까지는 정부 규제 방침의 계도·홍보 기간이며 과태료는 다음달 1일부터 부과된다. /김애리기자kai@kdaily.com

### 10대 여학생 성매매 강요 화대 뜯은 20대 2명 구속

10대 소녀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화대를 뜯어낸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순천경찰서는 18일 여학생에게 인터넷을 통해 확보한 성매매수첩과 성매매를 강요한 뒤 화대를 가로챈 이모(21)씨와 또다른 이모(20)씨 등 2명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이들 여학생과 성관계를 한 성매매수 22명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순천=김희석기자

### 가출 10대들 상가 텅다 붙잡혀

가출한 10대들이 새벽 시간대에 상가를 텅고 여성의 지갑을 날치기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18일 영입이 끝난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정모(22)씨에 대해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모(16)군 등 10대 청소년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정씨 등은 지난 5일 새벽 3시40분께 광주 광산구 우산동의 한 식당 문을 부수고 침입해 현금 130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까지 18차례에 걸쳐 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40대 여성행인의 가방을 날치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산=주형택기자

## 주택가 성매매 업주 등 59명 검거

### 인터넷 카페 운영 회원관리 경찰단속 피해

광주지방경찰청은 18일 주택가 오피스텔 등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최근까지 18차례에 걸쳐 8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40대 여성행인의 가방을 날치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광산=주형택기자

경찰은 또 음란전단지 배포하고 성매매를 한 박모(37·여)씨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집단 제작·인쇄업자의 행방을 추적 중이다. 김씨 등은 광주의 주택가 인근 오피스텔이나 유흥가에 허브샵 등

유사성행위 업소를 운영하며 1인당 7만~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1시 20분께 북구 두암동의 한 모텔에서 자신이 용봉지구 일대에 배포했던 음란전단을 보고 연락해 온 손님을 상대로 시간당 10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한 혐의다. /노병화기자icepoem@kdaily.com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경찰의 단속을 피하고자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며 회원들을 관리했고 신규회원은 가입 후 일정기간 영업대상에서 제외하며 회원이 아닌 손님이 전화 예약을 시도하면 다른 업주들의 회원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등 치밀한 수법을 써 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여러 업주가 오피스텔 방을 각각 따로 임대해 일반 세입자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병화기자icepoem@kdaily.com

### "버린줄 알았습니다. 한번만 용서를"

폐지 줍던 60대, 건조대 절도 혐의 경찰 조사

"버려진 물건 건인 줄만 알았습니다. 정말 남의 물건인 줄 몰랐습니다. 한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길거리에 버려진 폐지를 모아 판매하며 생활하던 60대 할머니가 절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아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18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북구 두암동에 거주하는 강모(68)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폐지를 모아 고물상에 판매해 받은 돈으로 하루하루를 근근히 살아가고 있었다. 강 할머니가 하루 폐지를 팔아서 받는 돈은 고작 몇 천원에서 많아야 1만원 정도 수준. 말 그대로 하루 벌 어 하루를 먹고 살고 있다. 지난달 30일 밤 8시10분께도 강 할머니는 자신이 주로 돌아다니는 북구 두암동 한 길거리에 여느 때와 같이 폐지를 줍고 있었다. 그때 한 원룸 복도에 수건 한 장이 널어진 빨래 건조대가 보이자 '술만한 물건인데 누가 버려놨구나'하는 생각으로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이 건조대는 윤모(29)씨가 잠깐 밖에 놓아둔 것으로 엄연히 주인이 있는 물건이었다. 윤씨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현장 CCTV를 통해 강 할머니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강 할머니는 "누가 버린 줄 알았지 주인이 있는 물건인 줄은 전혀 몰랐다"면서 "알았다면 가져가지 않았을 것이다. 한번만 용서해 달라"고 사정했다. 조사를 하던 경찰도 딱한 사정을 듣고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였다. 경찰은 "사건 피해액이 적고 피해품 또한 회수했으니 추가 조사를 통해 강 할머니가 고의로 훔친게 아닌 것이 밝혀지면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면서 "가끔 폐지를 줍는 노인들이 이러한 사건으로 경찰서에 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때마다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genius@kdaily.com

### KT직원 노동탄압 항의 유서 남기고 자살

KT직원이 노동운동 탄압에 항의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자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18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7시에 순천시 팔마 체육관 앞 주차장에서 KT 전남 모지사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차량 안에는 연탄불을 피운 흔적과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15년 간의 사측 노동 탄압이 끝났으면 한다', '(2013년 단체협상 등과 관련) 단체교섭안에 대한 찬반투표 후 (사측의) 김표가 두려워 항상 사진으로 남겼다', '반대 찍은 쥐도 새도 모르게 날아간다. 이런 현실에서 노조원의 주권을 소중하게 행사할 수 있겠는가'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순천=김희석기자

### 산단 시행사 선정 대가 뒷돈 기자 구속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18일 산업단지 조성 시행사로 선정되도록 돕는 대가로 거액의 뒷돈을 받은 A(46)씨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전국 단위 일간지 기자인 A씨는 지난 2011년 합평군이 조성 중인 동함평산단 조성 공사의 시행사로 선

정되도록 돕겠다며 업자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업체가 실제 시행사로 선정된 사실에 주목하고 업체 선정 과정에서 A씨가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공무원과 유착 사실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목포=정기성기자

www.hiddinkhotel.com

## 문화수도 중심부에 위치한 히딩크관광호텔

행복한 순간! 품격 높은 히딩크호텔과 함께하세요!!

- 객실** 전 객실 50% 할인(조식 및 사우나 포함)
- 웨딩홀** 웨딩패키지 할인(숙박권 증정)
- 돌잔치** 숙박권 증정 및 패키지 할인

※칠순연, 각종 세미나 (대·중·소 연회장 완비)  
※주차장 완비 (200대)

1F 커피숍, 한·일식당    6F 연회장    8F 연회장    2F 스포츠 마사지(별관)    1F 한·일식당    7F 스카이라운지 패즈바

본관 지하2층 남·여사우나 / 지하1층 료짜름, 보석불가마 / 1층 커피숍, 한일식당 / 2층 비치니센터, 객실 / 3·4·5층 객실(총65실) / 6층 연회장 / 7층 스카이라운지, 패즈바, 연회장 / 8층 연회장

별관 1층 오락실 / 2층 스포츠 마사지 / 3층 료짜름 / 4층 기호주점

**히딩크관광호텔**  
광주광역시 동구 불모동 160-1번지  
Tel.227-8500/Fax.227-2159

##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방/수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 주세요"

①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가격이 저렴하며, 시공면을 깨끗이 물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②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고점투성, 무공해·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③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물기가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④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⑤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가격이 저렴하며, 시공면을 깨끗이 물청소하시고 로라로 직접 칠해 주세요.

⑥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ENG, 이앤지 방수, 바닥 전문생산업체

**이앤지특수방수(주)**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ISO9001, 2001 인증